

인도네시아

- 기OO 선교사

및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히 금년에는 대학교와 주변지역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지형이 바뀌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18명의 학생들을 후원하며 이와 함께 은혜기숙사를 마련하여 선별된 학생들에게 영적 훈련 및 생활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이 땅에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어김없이 성경 통독 및 성경 공부를 17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말부터 시작했던 성도 양육

인도

- 정OO 전OO 선교사

고 참가한 사역자들은 피곤을 잊어버리고 매시간마다 팀멤버로 섬기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3월부터는 교사들을 주중에 줌미팅으로 만나 서로 기도하며 교체하는 줌미팅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먼저 말씀으로 훈련되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시

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에 계속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종교적 탄압과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GIGL 8기 TD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수많은 방해와 난관들이 있었습니.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

선교부 광고

- 04.07.2024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아르헨티나 성경적 재정교실 : 4/20-4/27, 문의: 남양호 장로 (559.250.7040)

▷라오스 개척선교: 5/1-5/10, T/M모임: 매주 목요일(8회), 5층 선교부 사무실, 팀장: 홍호철 장로, 총무: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콜롬비아 목회자 TD 4기: 5/5(주)-5/10(금), S/L:송중호 목사, ASST.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승호 안수집사 (G15),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T/M 미팅: 5/2 (목) 7PM VC108

▷브라질 IMERSAO#2 (브라질 한인 포르투갈어권 2세 TD) : 팀 멤버 모집, 5/29-6/1 (5/27출발-6/3도착), 렉터: 김수영 안수집사, 문의: 로이킴 안수집사 (213.999.1737)

▷파라과이 인카운터 2기: 6/3-6/10, 문의: 노우종 집사 (213.761.3590),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필리핀 VBS 2기 및 인카운터 5기: 6/23-7/3 자녀와 함께할수 있는 VBS선교, VBS팀장: 제키 유 전도사, 문의: 이희걸 안수집사(714.337.3091)

▷베네수엘라 AFA 10기 및 아마존 단기선교: 6/29-7/10,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김희철 안수집사, 문의: 이충렬 안수집사 (562.665.0607)

▷쿠바 인카운터, VBS, 청소년 수련회 FAMILY MISSION: 6/30-7/7, S/L: 설성훈 목사, VBS팀장: 설수진 목사, 디렉터: 로이킴 안수집사, 문의: 안재경 안수집사(213.675.5800), O/T:4/18(목) 7PM 웨딩 채플

▷파라과이 TD (PTD #1): 7/13-7/20, S/D:강충원선교사, 렉터: 임용환 안수집사, 문의: 김규현집사(714.502.4399), O/T:4/16(화)7:30PM, VC 웨딩채플

▷은혜동산 16기 오리엔테이션: 일정:7/19-7/2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이상홍 장로,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213.500.7939),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몽골 목회자 TD (MONGOLIA TD) 1기: 7/26-8/3, S/L: 한기홍 목사, 렉터: 원용경 장로, 코디네이터: 라병원 장로, 문의:이한철 안수집사(858.335.9415),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2.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료선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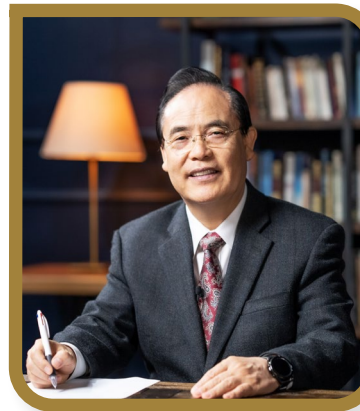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2024년 4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1개국 330명 (자체 파송 79%)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4년을 맞이하며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GMI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새해 표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며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선교일정

- ▷독일집회, 유럽성회(4/7-4/12)
- ▷콜롬비아 목회자AFA(5/5-5/10)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몰도바

- 정석영 선교사

살롬! 몰도바에서 기도 제목과 평안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제 사역이 진행되었으며 그 사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몰도바 각 지역 교회를 통하여 준비한 푸드박스를 배송해서 전달한 후, 각 교회들을 통하여 필요한 가정에 푸드박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푸드박스는 1개가 약 15KG으로 각종 음식 재료를 담아 만든 것으로 가정당 1개씩 전달이 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따뜻하

게 지낼 수 있도록 땀감을 준비하여 각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가정에 나누었습니다. 이 겨울용 땀감은 한 포대에 약 30KG으로 구성된 압축탄으로 각 가정에 약 30개 정도씩 개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푸드박스를 준비하여 각 거점지역 교회와 단체를 통해 약 1,000개의 박스가 우크라이나 난민가정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받은 이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역의 필요로 센터 인근에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창고 설치 작업은 사역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의 보급처 귀히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 응답으로 왼쪽 손가락 떨림 증상이 어느 정도 회

복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이곳에서의 사역과 저의 언어 적응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과 민족들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 유00 선교사

족들을 섬기며 맡겨주신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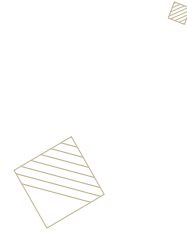
그럼에도 이 땅은 갈수록 빠르게 닫혀져만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년부터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고민하며 그 때와 방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본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거대한 땅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민

우연히 탈북자 선교단체를 알게 되어 얼마동안 북한선교에 대한 세미나와 교육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 받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미얀마

- 김00 김00 선교사

의 상황에 대비해 대피 준비를 권고하였고 매일마다 확인된 교전 상황을 보내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4월부터는 이곳 청년들을 강제징집하여 교회와 복음자리 청년 및 교사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들을 안정시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무력충돌이 멈추어 이 나라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통해 한국에 일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및 복음자리 청년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이 위기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내전이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희가 머무는 이곳마저 순식간에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만약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5년 비자가 말도 안되게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와 함께 산간 오지 고속도로를 사역자들과 함께 다니며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세워진 모든 학교와 교회 및 현지 선교단체가 모두 자립, 자치, 자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간신히 세워진 연합정부와 주권자들이 비록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무슬림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 비즈니스 비자로 복음을 전한다고 비자가 연속으로 2번이나 거부당한 뒤로 3개월씩 비자를 연장해가며 사역해오느라 정말 쉽지

어린 나이에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부들과 그저 돈이 없어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현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삶과 육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배워가며 어느새 능숙하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가 썩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소독하고 항생제를 주며 함께 기도하였는데 몇일 후 다리에 새살이 올라왔습니다.



탄자니아의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사로 섬기며 참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 둘을 키우는 젊은 과부가 영양실조에 이어 면역력이 약한 상황에서 생긴 증기로 제대

부족하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길

<1분단상 126-4월호>

-김대규 장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는 진리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인 것이다.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오고, 절망하며, 시험이 불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길하면 오솔길로부터 고속도로, 뱃길, 비행항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있다. 우리는 이런 길들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길이든 그 길을 벗어나면 헤매게 되고 위험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길도 이룬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더욱 조심을 요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다. 영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인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낙타와 바늘귀(좁은)의 비유처럼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들어가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순종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경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렇게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리 살아야 한다.

YWAM(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목사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엄청난 물결이 전세계 대륙을 덮더니 그 물결이 수많은 청년들이 전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순종코자 젊은이들을 세우는 초교파 선교단체인 YWAM을 설립케 되었다. 그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일로부터 좋은 청빙자리의 포기 등 그는 여러 현안을 정리해야 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코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미련없이 내려놓았다.

그렇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예라고 답했을 때 그러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Darlene)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로렌 커닝햄 목사(87)부부는 YWAM의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해 오던 중 목사님은 지난 10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였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허울 좋은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 믿음,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며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드리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여정이다. 이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어느 길에서 있는 것일까? 저 천성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에 우뚝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하소서"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날 선교회가 있는 California로 가다가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실려 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 옆자리에 있던 아내는 숨이 끊어져 있었다. 주께 순종코자 발을 내딛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었다.